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8/14

한국인이 본 런던 올림픽 ①

17일 동안 수많은 휴먼 드라마를 연출했던 런던 올림픽이 13일 화려한 폐막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당초 목표를 훨씬 웃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에 오르며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갤럽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흥미로웠던/아쉬웠던 경기와 한국 선수단 성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511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8월 13일(1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4.3\%$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26%

주요 결과

-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손연재' 26.1%, '박주영' 25.5%, '양학선' 24.0% 순 (2명까지 응답)
- 흥미로웠던 경기
'축구' 70.3%, '리듬체조' 19.8%, '양궁' 18.5% 순 (2명까지 응답)
- 아쉬웠던 경기
'펜싱' 40.1%, '배구' 17.4%, '핸드볼' 17.2% 순 (2명까지 응답)
- 한국 선수단 성적 평가
'기대 이상의 성적' 86.8% > '기대만큼의 성적' 11.5% > '기대 이하의 성적' 1.0%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1 위에 체조 요정 ‘손연재’(26.1%) 꼽혀
한일전 승리의 주역 ‘박주영’과 체조 최초 금메달 ‘양학선’ 간발의 차이로 2, 3 위

한국갤럽이 지난 8 월 13 일 전국의 만 19 세 이상 남녀 511 명에게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가 누구인지 물은 결과(2 명까지 응답), 리듬체조 결선에서 곤봉을 떨어뜨려 아깝게 메달은 놓쳤지만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성적인 5 위에 오른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를 꼽은 국민이 26.1%로 가장 많았다.

축구 동메달 결정전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박주영’ 선수(25.5%), 한국 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을 일궈낸 ‘양학선’ 선수(24.0%)가 간발의 차이로 2, 3 위에 자리했다. 축구 한일전에서 후반 썰기 골을 터트린 ‘구자철’ 선수(14.7%), 수영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실격판정이 반복되는 약재를 딛고 값진 은메달을 따낸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12.8%)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양궁 2 관왕 ‘기보배’ 선수(9.3%), 사격 50m 권총에서 올림픽 2 연패를 달성한 ‘진종오’ 선수(8.8%), 4 년 전 은메달을 금메달로 바꾼 유도 ‘김재범’ 선수(5.7%) 등 금메달 리스트와 오심으로 개인전 금메달은 놓쳤으나 절치부심, 단체전 은메달을 딴 펜싱의 ‘신아람’ 선수(8.0%) 등이 한국을 빛낸 훌륭한 선수 10 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손연재’ 선수는 여성의 32.1%, 남성의 19.9%가 꼽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20 대(13.6%)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30% 내외로 고르게 응답됐다. 한편, ‘박주영’ 선수는 50 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35%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 상위 10 위

(아래는 상위 5위까지만 제시, %)

순위	선수	%		손연재	박주영	양학선	구자철	박태환
1	손연재 (체조)	26.1	전체	26.1	25.5	24.0	14.7	12.8
2	박주영 (축구)	25.5	성별					
3	양학선 (체조)	24.0	남성	19.9	25.8	25.5	16.0	9.3
4	구자철 (축구)	14.7	여성	<u>32.1</u>	25.2	22.6	13.3	16.3
5	박태환 (수영)	12.8	연령별					
6	기보배 (양궁)	9.3	19~29세	13.6	21.2	20.0	18.1	18.0
7	진종오 (사격)	8.8	30대	29.9	14.4	30.4	6.7	13.5
8	신아람 (펜싱)	8.0	40대	27.8	23.1	21.5	18.0	13.0
9	기성룡 (축구)	7.5	50대	33.4	34.2	27.5	12.0	10.1
10	김재범 (유도)	5.7	60세이상	25.0	35.5	20.6	18.6	9.5

(질문)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우리나라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만 더 꼽으신다면요? (2명까지 응답)

흥미 있게 본 경기는 '축구'(70.3%)

리듬체조 19.8%, 기계체조 10.1% 등 '체조' 인기 높아져

우리 국민 10 명 중 7 명(70.3%)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흥미 있게 본 경기로 '축구'를 꼽았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듯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일본을 꺾으며 1948 년 올림픽 출전 이후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10 명이 나가는 결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뛰어넘어 결선에서 5 위를 기록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끈 손연재 선수의 '리듬체조' 경기가 19.8%로 2 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보배, 오진혁 선수가 쏜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때마다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양궁'(18.5%), '멈춰버린 1 초'로 메달을 놓친 신아람 선수의 눈물을 발판으로 금 2, 은 1, 동 3 개의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펜싱'(17.5%),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선사한 양학선 선수의 '기계체조'(10.1%)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야구, 수영, 역도, 핸드볼, 유도 등이 인기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이번 올림픽에선 새로운 종목들이 국민의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체조와 펜싱의 인기가 고무적이다. 런던 올림픽은 다양한 종목의 매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준 대회로 기억될 만하다.

• 흥미 있게 본 경기 - 상위 5 위

(2종목까지 응답)

구분	2012년 런던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종목	%	경기종목	%
1위	축구	70.3	야구	48.0
2위	리듬체조	19.8	수영	38.0
3위	양궁	18.5	역도	28.2
4위	펜싱	17.5	핸드볼	23.8
5위	기계체조	10.1	유도	20.0

(질문) 이번 올림픽에서 선생님께서는 가장 흥미 있게 보신 경기는 어느 종목입니까?

그 다음으로 흥미 있게 보신 경기는요? (2종목까지 응답)

**아쉬운 경기 1 위 '펜싱'(40.1%) - 멈춰버린 '1 초'와 함께 아쉬움도 커져
세계 강호 격파했으나 메달 사냥 실패한 배구(17.4%), 핸드볼(17.2%)에도 아쉬움 남아**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아쉬운 경기를 물어본 결과(2 개까지 응답), **'펜싱'**을 지목한 경우가 40.1%로 가장 많았다. 펜싱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 2, 은 1, 동 3 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종합 5 위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국민들의 뇌리에는 여전히 신아람 선수의 눈물이 남아있었다. 상대선수의 4 번째의 공격이 이뤄지는 동안 흐르지 않았던 '1 초'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아쉬움도 커졌다.

아쉬운 경기 2 위는 **'배구'**(17.4%)였다. 세계 랭킹 1~3 위의 미국, 브라질, 중국, 7, 8 위의 세르비아, 터키와 격돌한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아 8 강전에서 이탈리아(랭킹 4 위)를 꺾은 우리 여자 대표팀은 비록 숙적 일본(랭킹 5 위)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분패했지만 메달 획득 이상의 감동을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핸드볼'(17.2%)이 아쉬운 경기 3 위였다. 예선 첫 경기에서 부상 당한 주포 김은아의 빈자리와 체력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강호들을 연파했던 우리 여자 대표팀은 스페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2 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9 대 31 로 패했지만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에 부끄럽지 않은 악착같은 플레이로 감동을 안겨줬다.

우리 국민들은 여자 배구와 핸드볼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이어 박태환 선수가 실격판정이 반복되는 우여곡절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건 **'수영'**(14.3%)과 금메달 1 개, 은메달 1 개의 역대 최저 성적으로 중주국의 위상이 흔들린 **'태권도'**(12.7%)가 각각 아쉬운 경기 4 위와 5 위에 올랐다.

• 아쉬운 경기 - 상위 5 위

(2종목까지 응답)

종목	%
펜싱	40.1
배구	17.4
핸드볼	17.2
수영	14.3
태권도	12.7

(질문)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 중 가장 아쉬운 경기는 어느 종목이었습니까?

그 다음으로 아쉬웠던 경기는요? (2개까지 응답)

우리나라 성적 '기대 이상이다'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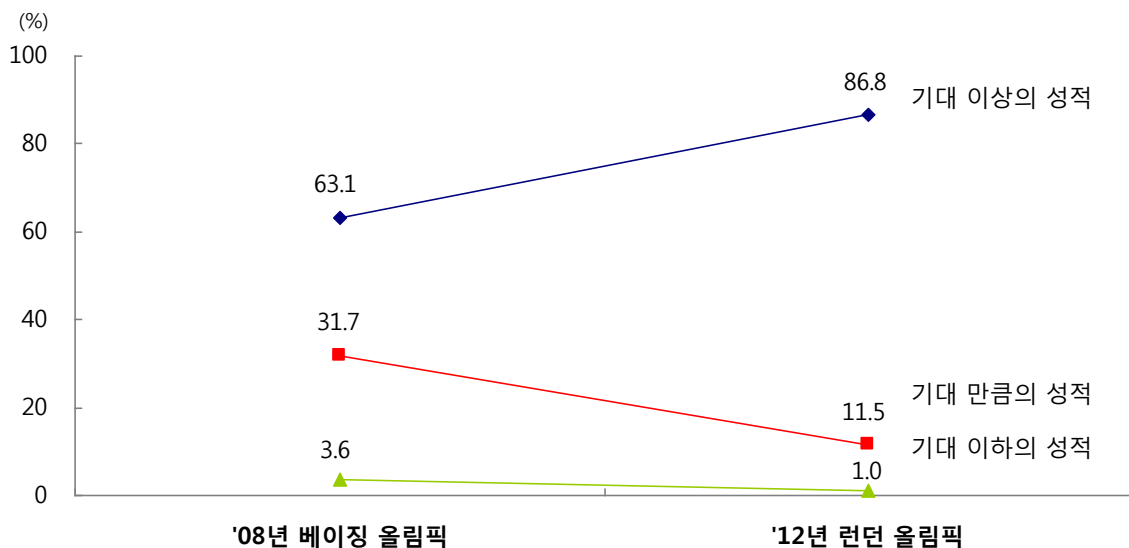
4년 전 베이징 올림픽보다 메달 적었으나 '기대 이상 성적' 응답 23.7%포인트 늘어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를 기록하며 '88 서울 올림픽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과연 국민들은 우리 선수단의 성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의 성적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 비교해 어떠한지 물어본 결과, '기대 이상의 성적'이란 응답이 86.8%로 압도적이었다. '기대만큼의 성적' 응답은 11.5%, '기대 이하 성적이다'는 1.0%였다.

한국갤럽이 런던 올림픽 개최 한 달 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68.1%가 우리 선수단이 '10위 내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10위권 내 진입을 전망한 이들의 평균 예상 성적은 평균 종합 7위였던 것에 비하면 런던 올림픽의 성과는 기대 이상임에 틀림없다. 한편, 당시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5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국민은 9.5%였다.

• 우리 선수단 성적에 대한 평가



(질문)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등 총 28개의 메달로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올린 성적은 선생님께서 기대하신 것에 비해 더 좋은 성적입니까, 기대 이하입니까, 아니면 기대하신 만큼입니까?